이른 더위에 에어컨 인기…신바람 난 유통가

4월 백화점 에어컨 매출 60% 증가…위드 코로나에 화장품 매출도 ↑

정기 세일 매출 전년비 광주신세계 15%·롯데백화점 광주점 6% 증가

4월 중순에도 한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는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 백화점 에어컨 매출이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광주 주요 백화점들의 올 들어 첫 정기세일 매출도 전년보다 늘었다.

20일 광주 주요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봄 정기세일이 진행된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매출은 전년보다 광주신세계는 15%,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6%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에어컨과 화장품 부문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눈에 띈다.

광주신세계는 세일 기간 동안 에어컨 매출이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색조 화장품 매출은 6% 늘었다.

광주신세계에서 젊은층이 주된 고객인 '영캐릭터' '영캐주얼' 상품 부문은 각각 10%, 28% 매출이 증가했다.

골프용품과 의류는 무려 48% 늘어났고, 아웃도어(37%), 남성 의류(17%), 아동(14%) 등도 전년보다 좋은 매출을 거뒀다.

4월 에어컨 매출의 증가는 이른 더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광주신세계는 최근 본관 8층 생활전문관에 '삼성 프리미엄 스토어'를 열어 이달 말까지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와 이사철 수요를 겨냥해 에어컨 등 일부 행사제품을 최대 6% 할인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상품권과 회원 점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톡에서 '삼성 프리미엄스토어 광주신세계'를 친구 추가하거나 네이버 예약 상담을 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

머지않은 날에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세일 기간 동안 화장품 매출이 3% 증가했다.

이사철을 맞아 가구 매출이 전년보다 41% 증가하고, 아웃도어·스포츠 상품군이 16%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들어 '르꼬끄 스포츠' '카파' 'NFL' 등 신규 스포츠 브랜드를 5층에 새로 들이거나 새단장해 문을 열었다.

이달 중순 문을 연 'NFL' 매장은 오는 24일까지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구매 금액대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5층 스포츠 매장에 새로 문 연 'NFL' 매장에서 봄철 야외활동용 점퍼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이마트, 앱 간편결제서비스 '이마트페이' 5월 12일 도입

오늘부터 3주간 홍보행사

이마트는 자체 앱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다음달 12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마트가 도입하는 '이마트페이'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앱 바코드로 결제와 포인트 적립·사용, 쿠폰 적용 등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쓱(SSG)페이를 통해 서비스된다.

그동안 이마트 매장에서 결제할 때는 이마트 앱의 포인트카드 바코드를 찍어 할인쿠폰을 적용한 뒤 실물카드나 쓱페이 앱으로 따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코드 인식만으로 쿠폰과 적립금 사용, 결제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마트 측은 매장에서 결제 대기 때 복잡함이 최소화되고 고객들의 쇼핑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공식 서비스 시작에 앞서 21일부터 5월11일까지 3주간 이마트앱에서 쓱페이 계정에 가입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주는 등 사전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7만원 이상 결제하면 이마트 5000원 할인권 등 '이마트페이 전용 결제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할인권은 공식 시행일인 5월12일부터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마트페이'로 첫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이마트 e머니, 트레이더스 할인쿠폰 지급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체온풍 탑재 사계절 쓰는 무풍에어컨 출시

'AI 쾌적' 기능·유해세균 살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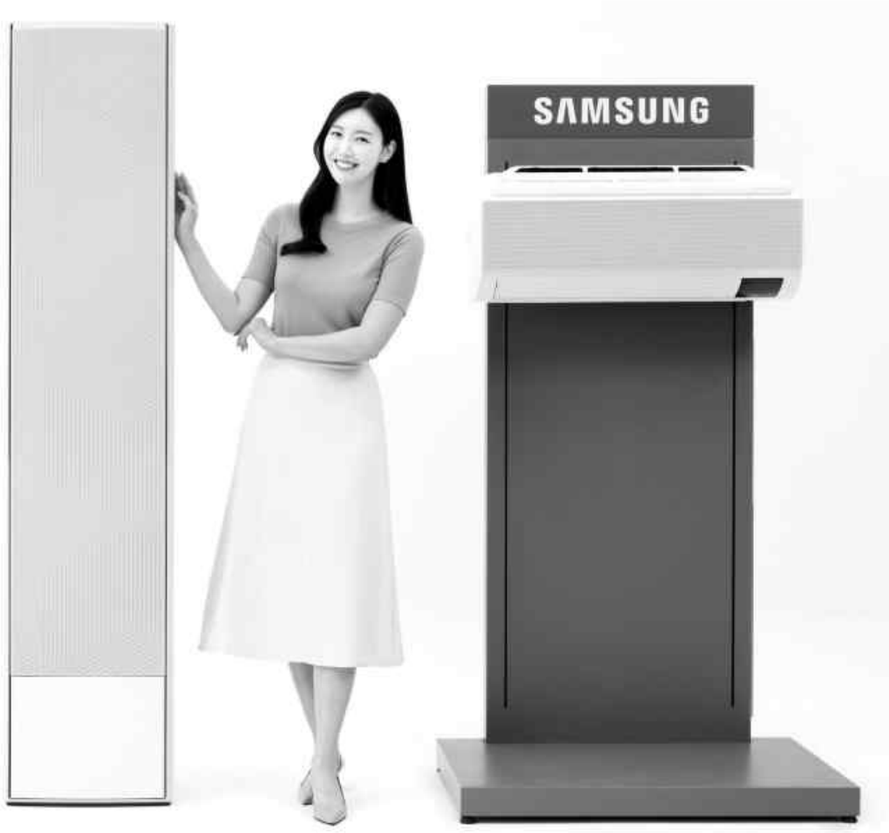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냉방이 필요한 여름뿐 아니라 간절기에도 사용하기 좋은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체온풍'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온풍은 영상 30~40도의 은은한 바람을 내보내 온기를 더해주는 기능으로, 날씨가 선선한 봄·가을철이나 서늘하면서 습기가 높은 날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체온풍은 홈멀티로 같이 출시되는 벽걸이형에도 적용됐다.

해당 제품은 '와이드 무풍냉방'이 22만개의 마이크로홀에서 나오는 냉기로 소비전력을 최대 90% 절약, '하이패스 서큘 급속냉방'이 사각지대 없이 빠르게 온도를 낮춰준다는 게 장점이다.

무풍갤러리 체온풍은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해 냉방·청정·제습 모드를 알아서 작동해주는 'AI 쾌적' 기능도 제공하며, PM 1.0 청정 안심필터 시스템이 탑재돼 사계절 미세먼지 청정은 물론 유해세균도 99% 살균해준다. 일회용 건전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솔라셀 리모컨'도 적용됐다.

무풍갤러리 체온풍은 냉방면적 62.6㎡의 스탠드형과 냉방면적 18.7㎡의 벽걸이형으로 구성된 홈멀티 제품으로 출시된다. 색상은 3가지 패턴의 화이트로, 가격은 출고가 기준 512만원이다. 22일부터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며, 공식 출시는 다음달 2일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오락가락 장바구니 물가…감자·명태 올랐다

대파·양파·고구마 등 하락

감자 저장물량이 빠지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87% 뛰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감자 100g 소매가격은 430원으로, 전년(230원)보다 87.0% 뛰었다.

2주 전인 이달 6일(400원) 보다는 7.5% 상승했다.

감자 외에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은 명태와 깐마늘 등이 있다.

명태(냉동) 1마리 가격은 2860원으로, 전년 같은 날(2000원) 보다 43.0% 올랐다.

깐마늘 1kg 가격은 전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11.1% 상승했다.

맑은 날씨에 출하량이 늘어난 대파 1kg 가격은 이날 2300원으로, 전년(4200원)보다 45.2% 내렸다.

붉은 고추 100g 값은 전년 1800원에서 이달 20일 1000원으로, 44.4%나 떨어졌다.

이날 양파 1kg 가격은 전년(2500원)보다 24.0% 내린 1900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고구마 1kg 가격은 5000원으로, 전년(6000원)보다 16.7%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장애인의 날 맞아 영화관람 행사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0일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충열 광주수완점장은 우수 봉사자로 선정돼 광산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중증 장애인 가정 50여 명은 이날 배우 김영옥 주연 '말임씨를 부탁해'를 롯데시네마 광주수완점에서 관람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지난 2016년 4월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봉사를 펼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과 생활용품 지원, 음식 나눔 등이 대표적 봉사활동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